

2021-01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1. 06.

-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1~2월 중 국내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강세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지난해 11~12월 중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위험자산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

* 이달부터 전망 대상 금융시장지표를 기존 7개(한은 기준금리, 국고채 금리, 주요국 환율, 한국 주가지수)에서 15개(미 연준 기준금리, 선진국 국채, 미국 주가지수 추가)로 확대하고 15개 지표의 2021년말 전망치도 금리, 환율, 주가 전망표에 각각 포함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확장적 재정운용, 실물경기 개선 기대를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12월말 0.97% → 1월말 0.99% → 2월말 1.02%)
 -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수출 지표 개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반영하여 금리상승압력이 우세
 - 선진국 국채금리도 경기 회복 기대,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 국채 10년물 12월말 0.91% → 1월말 0.95% → 2월말 0.97%)
- 원화와 주요국 통화는 글로벌 경기 회복, 미·중 갈등 완화에 따라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원/달러 12월말 1,087원 → 1월말 1,085원 → 2월말 1,080원)
 - 위안화 강세에 더하여 국내 수출 회복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원화 절상요인으로 작용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특히 반도체 등 IT 업종)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오름세 지속(KOSPI 12월말 2,873 → 1월말 2,980 → 2월말 3,000)
 - 다만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수의 단기조정 가능성이 점증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중 연구위원(02-2173-0568), 김진희 선임연구원(02-2173-0585)
이다운 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I. 2021.1~2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1. 금리

가. 국내금리

■ **한은 금통위는 1.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0.50%)에서 동결할 전망**

-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 증가와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게 제약
 - * 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12.25일)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발표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020.12월말 0.97% → 2021.1월말 0.99% → 2월말 1.02%**

-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국내 수출 반등, 재정지출 확대(연간 예산 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반영하여 금리가 상승
 - * 정부는 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2월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 5월 모더나(2,000만 명분) 등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
 - * 국내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20.10월 -3.8% → 11월 4.1% → 12월 12.6%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020.12월말 1.72% → 2021.1월말 1.73% → 2월말 1.74%**

- 2년물 신규발행 등 중장기물 발행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국내 수출지표 개선, 확장적 재정지출을 반영하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
 - * 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10년물 발행 비중이 축소(2020년 평균 25.7% → 2021.1월 22.7%)될 예정이고, 2월부터는 국고채 2년물이 정례 발행될 예정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1월	12월	2021.1월(F)	2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7	1.03	0.98	0.97	0.99	1.02
국고채 10년	기말, %	1.72	1.67	1.66	1.72	1.73	1.74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0.12.1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2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¹⁾)

- 12월말 국고채 3년 금리는 0.98%로 전망치(1.00%)를 소폭 하회
- 주요국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 지속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1.26~2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12월 FOMC에서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3년으로 예측하고, 금리전망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7명 중 16명이 2022년까지 금리 동결을 제시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020.12월말 0.91% → 2021.1월말 0.95% → 2월말 0.97%

- 1.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 이후 추가 부양책 기대, 백신 접종 확대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상원은 현재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으로 남아있는 2개 의석 중 공화당이 1개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다수당을 유지하지만, 민주당이 2개 모두를 차지할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Blue wave(민주당이 행정부, 상하원을 모두 석권)가 실현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020.12월말 -0.57% → 2021.1월말 -0.53% → 2월말 -0.50%

- 상점·학교 폐쇄 등 봉쇄조치(12.16~1.10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개시(12.27일)와 ECB의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에 힘입어 금리가 소폭 상승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020.12월말 0.20% → 2021.1월말 0.20% → 2월말 0.21%

- 변종 바이러스 성행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백신 접종으로 금리는 소폭 반등
 - * 12.24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타결(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상품 무역은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하지만 통관·검역절차가 새로 생겼으며, 서비스 무역은 상당 부분 별도 협정이 필요)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보합 전망: 2020.12월말 0.03% → 2021.1월말 0.02% → 2월말 0.03%**

- 일본 중앙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년물 금리 목표수준 0% 내외)과 코로나 확산세로 금리는 보합권에서 등락
 - * 12.28일~1.31일까지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한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 거부, 여행 지원 사업(Go to travel) 중단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1월	12월	2021.1월(F)	2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08	0.84	0.91	0.95	0.97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30	-0.57	-0.57	-0.53	-0.50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44	0.31	0.20	0.20	0.21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04	0.03	0.03	0.02	0.03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0.12.1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2020.12월말 1,087 → 2021.1월말 1,085 → 2월말 1,080**

-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에 따른 수출 회복, 경상수지 흑자기조로 원화 절상압력이 우세
 - *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달러로 2017.9월 이후 3년만에 최대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2020.12월말 6.53 → 2021.1월말 6.51 → 2월말 6.50**

- 중국의 견조한 경기 개선세, 외국인의 채권·주식 투자자금 유입,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 등으로 위안화 강세압력이 지속
 - * 중국 11월 주요 거시지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7.0%, 소매판매 5.0%, 고정자산투자(연누적) 2.6%
 - * 2021년부터 외국인들도 후강통(외국인의 상하이증시 주식 매매)과 선강통(외국인의 선전증시 주식 매매)을 통해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 기술종목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면

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2020.12월말 103.0 → 2021.1월말 102.8 → 2월말 102.7

- 도쿄도 등 수도권외의 코로나 긴급사태(1.7일 발동 관측)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지표 개선과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 증가로 엔화는 소폭 강세
 - * BOJ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예: 자금유통 지원 특별프로그램 기간을 6개월 연장, 수익률곡선관리 정책)를 유지하기로 결정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2020.12월말 1.228 → 2021.1월말 1.230 → 2월말 1.232

-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달러 약세가 강화되고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12.24일)로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유로화 강세가 지속
 - * 12.10일 ECB는 봉쇄조치 강화로 4분기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 조치를 확대 또는 연장(예: 팬데믹 긴급프로그램(PEPP) 매입규모를 5,000억 유로 증액하고 순매입기간을 최소 9개월 연장)
 - * 12.10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화 강세가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로화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1월	12월	2021.1월(F)	2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070	1,106	1,087	1,085	1,08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50	6.58	6.53	6.51	6.50
엔/달러	기말, 엔	103.0	104.5	104.0	103.0	102.8	102.7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220	1.199	1.228	1.230	1.232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0.12.18일) 기준

주2: 20.12월 원화는 12.30일 기준,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12.31일 기준 종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국 통화대비 원화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1월	12월	2021.1월(F)	2월(F)
원/100엔	기말, 원	1,055.3	1,023.9	1,063.5	1,054.4	1,050.6	1,046.7
원/유로	기말, 원	1,334.8	1,305.4	1,326.1	1,334.8	1,334.6	1,330.6
원/위안	기말, 원	166.5	164.6	168.1	166.5	166.7	166.2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0.12.18일) 기준

주2: 20.12월 원화는 12.30일 기준,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12.31일 기준 종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2월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²⁾

-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1,087원으로 전망치(1,090원)에 부합
- 백신 보급,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 회복과 위안화 강세로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지속

3. 추가

■ KOSPI 상승 전망: 2020.12월말 2,873 → 2021.1월말 2,980 → 2월말 3,000

- 백신 보급에 따른 국내외 경기 회복과 반도체 등 IT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의한 개인들의 투자자금 유입으로 주가에 상승 모멘텀이 우세하나, 최근 급등으로 지수의 단기조정 가능성이 점증
 - *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와 중국·미국·아세안 등의 모바일 수요 확대로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2020.12월 +30.0%)
- 국내 은행주는 배당 규제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와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하여 추가 반등을 예상

■ KOSDAQ 상승 전망: 2020.12월말 968 → 2021.1월말 985 → 2월말 1,000

- 글로벌 경기 회복, 뉴딜정책 원년에 따른 바이오·IT 혁신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수의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상존
 - *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세(2020.12월 +104.4%)

■ S&P500 상승 전망: 2020.12월말 3,756 → 2021.1월말 3,780 → 2월말 3,800

-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으로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

2)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에 따른 지수의 단기조정 가능성도 잠재

- * 세계보건기구(WHO)는 12.31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허가하고, 영국은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
- * 12.28일 트럼프 대통령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재정부양책과 1.4조달러 규모의 2021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1월	12월	2021.1월(F)	2월(F)
KOSPI	기말	2,873	2,850	2,591	2,873	2,980	3,00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1,635	1,581	1,557	1,580	1,600
KOSDAQ	기말	968	970	886	968	985	1,000
S&P500	기말	3,756	3,800	3,622	3,756	3,780	3,80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0.12.1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2월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³⁾

- 12월말 KOSPI는 2,873으로 전망치(2,730)를 큰 폭 상회
- 전세계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주가지수가 급등

3) 대표 주가지수(KOSPI)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하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 12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12.25일)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 지원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발표
 -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과 사전 매입 공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금리 안정화 의지를 표명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bp 하락(11월말 0.98% → 12월말 0.97%)
 - 코로나 확산으로 0.93%(12.23일)까지 낮아졌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추가부양책 통과와 당초 예상보다 큰 3차 재난지원금(9.3조원, 1.11일 지급 개시) 발표로 하락폭이 축소
 - * 1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2.24일부터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
 - * 12.29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3조원으로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 수준을 상회, 재원은 목적예비비(4.8조원), 내년 예산(3.4조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6bp 상승(1.66% → 1.72%)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1.64%(12.23일)까지 낮아졌으나, 대규모 3차 재난지원금 발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통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물량 출회로 상승
 -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 순매수(만 계약): 10월 -1.1 → 11월 -1.5 → 12월 -2.3
 - * 국채 10년, 3년 금리 스프레드(bp): 10월말 62 → 11월말 68 → 12월말 75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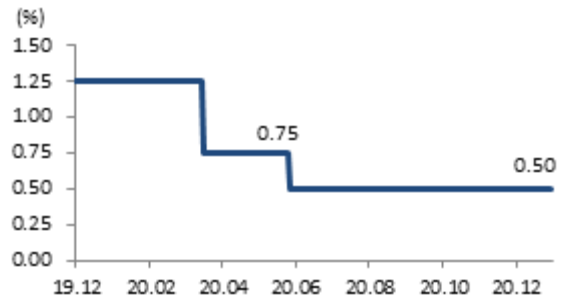
	단위	12.31일 종가	변화폭(bp)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한국	기준금리(기말)	%, bp	0.500	0	0	0	-75	-75
	통안채(1년, 기말)	%, bp	0.708	-2	1	6	-66	-66
	국고채(3년, 기말)	%, bp	0.970	-1	13	13	-39	-39
	국고채(10년, 기말)	%, bp	1.722	6	30	34	5	5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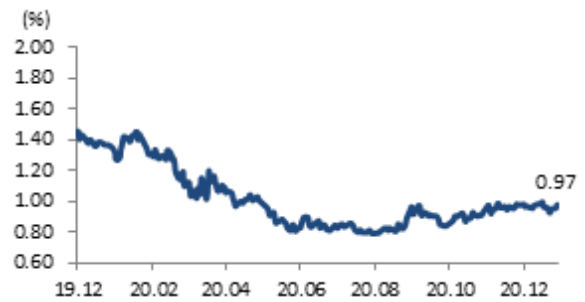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국고채 3년물(월간)



국고채 3년물(일간)



국고채 10년물(월간)



국고채 10년물(일간)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붙임2 | 12월중 해외금리 동향

- 미 연준은 12.15~16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만장일치)하고, 자산매입규모를 최소한 현재 수준(매월 국채 800억 달러,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 매입)에서 유지

 - * 자산매입기간: 11월 '향후 몇 개월간' → 12월 '고용·물가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 * 자산매입규모: 11월 '최소 1200억 달러' → 12월 '최소 국채 800억 달러,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7bp 상승(11월말 0.84% → 12월말 0.91%)

 - 화이자 백신에 대한 미 FDA 승인 기대로 국채금리가 0.97%(12.5일)까지 급등하였으나 지역별 봉쇄조치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반락
 - *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 첫째 주 86.2만 건 → 12월 둘째 주 88.5만 건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보합(-0.57% → -0.57%)

 - 유럽중앙은행(ECB)은 12.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0.50%)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
 - *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5천억유로 확대하고 순매입기간을 최소 9개월 연장. 담보기준 완화 기간 연장, 대출한도 확대, 자산매입(200억 유로) 지속 등도 포함
 - 노딜 브렉시트 우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채금리가 -0.64%(12.6일)까지 하락하였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와 ECB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힘입은 경기회복 기대로 소폭 반등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1bp 하락(0.31% → 0.20%)

 - 영국 중앙은행(BOE)은 12.1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0.10%)를 동결하고 자산매입규모도 현 수준(8,950억 파운드)에서 유지
 - 변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국채금리가 0.17%(12.13일)까지 급락했으나 12.24일 영국-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소폭 반등
 - * 영국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11.30일 12,329명 → 12.30일 50,023명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보합 (0.03% → 0.03%)

-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년물 금리 목표수준 0% 내외)과 일본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채금리가 0% 내외에서 등락
 - * 일본 정부는 12.28일~1.31일까지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불허
 - * 일본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11.30일 2,107명 → 12.30일 3,476명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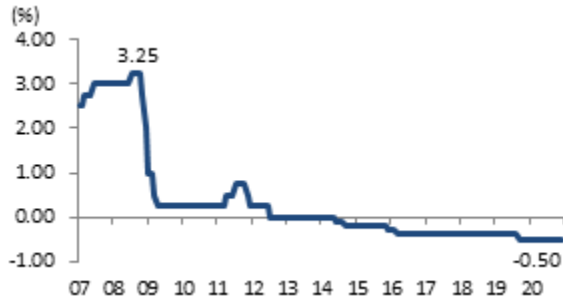
		단위	12.31일 증가	변화폭(bp)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미국	기준금리(기말)	%, bp	0.250	0	0	0	-150	-150
	국채(10년, 기말)	%, bp	0.913	7	23	26	-100	-100
독일	기준금리(기말)	%, bp	-0.500	0	0	0	0	0
	국채(10년, 기말)	%, bp	-0.569	0	-5	-12	-38	-38
영국	기준금리(기말)	%, bp	0.100	0	0	0	-65	-65
	국채(10년, 기말)	%, bp	0.197	-11	-3	3	-63	-63
일본	기준금리(기말)	%, bp	-0.100	0	0	0	0	0
	국채(10년, 기말)	%, bp	0.026	0	0	-1	6	6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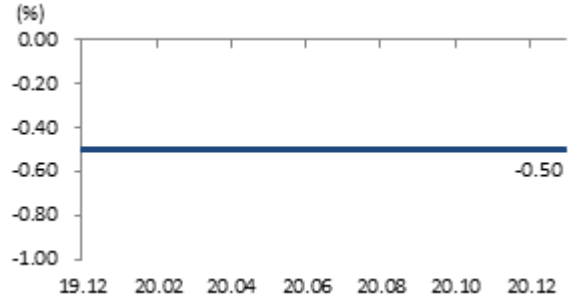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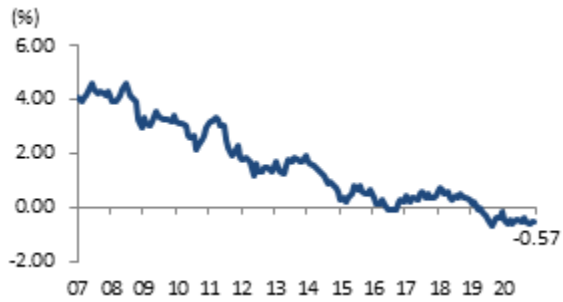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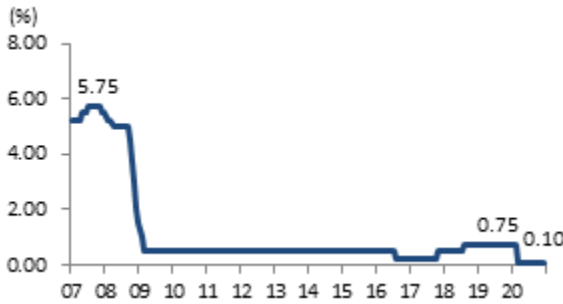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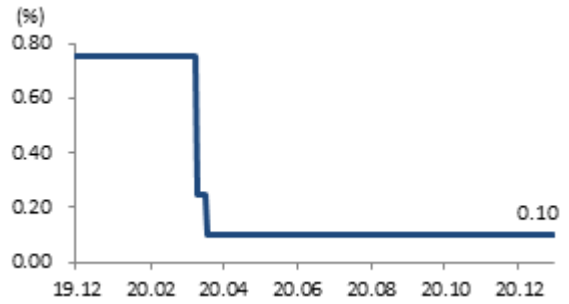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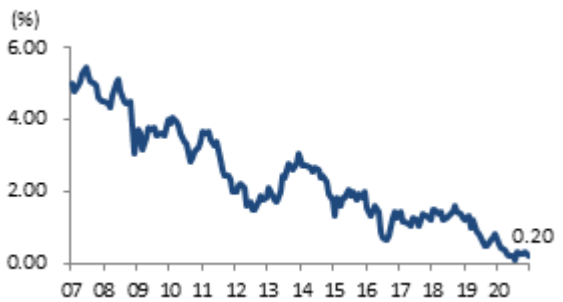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월간)



BOE 기준금리(일간)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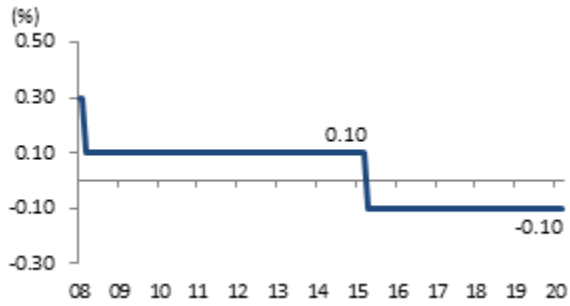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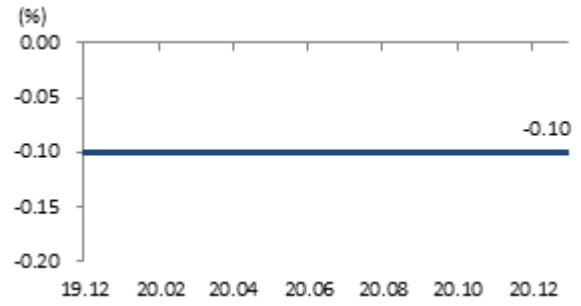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BOJ 기준금리(월간)



BOJ 기준금리(일간)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붙임3

12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1.8% 하락(원화 강세, 1,106 → 1,087)**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 연말 네고물량(달러 매도) 출회, 위안화 강세가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
 - * 국내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25일 사상 최고치(1,241명)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고 1.17일까지 연장
 - * 국내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10월 -3.8% → 11월 +4.0% → 12월 +12.6%

■ **위안/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0.8% 하락(위안화 강세, 6.58 → 6.53)**

- 중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 외국인 채권·주식투자자금 유입,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강세가 이어짐
 - * 중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1.1%로 2018.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 12.31일 위안/달러는 장중 6.49까지 하락하여 2018.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엔/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0.9% 하락(엔화 강세, 11월말 104.0 → 12월말 103.0)**

-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하에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일본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차익 실현(외화 매도-엔화 매입)으로 엔화 강세 시현
 - * 달러인덱스는 12.30일 89.64로 2018.4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 **달러/유로 환율은 전월말 대비 2.5% 상승(유로화 강세, 1.199 → 1.228)**

- 역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주요국의 완화적(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 유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가 지속

주요 환율

	12.31일 종가	변화율(%)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원/달러(기말)	1,087	-1.8	-7.1	-9.7	-6.0	-6.0
위안/달러(기말)	6.53	-0.8	-3.9	-7.6	-6.3	-6.3
엔/달러(기말)	103.0	-0.9	-2.5	-4.4	-5.1	-5.1
달러/유로(기말)	1.228	2.5	4.9	9.6	9.5	9.5
원/위안(기말)	166.5	-1.0	-3.4	-2.2	0.3	0.3
원/100엔(기말)	1,054	-0.9	-4.8	-5.6	-1.0	-1.0
원/유로(기말)	1,334	0.6	-2.6	-1.0	2.9	2.9
달러지수(기말)	89.9	-2.1	-4.2	-7.7	-6.7	-6.7

주1: 변화율이 플러스(+)이면 미 달러화 대비 해당 통화의 절하(약세)를 의미. 다만, 달러/유로와 달러지수는 마이너스(-)일 경우 절하(약세)를 의미

주2: 원화는 12.30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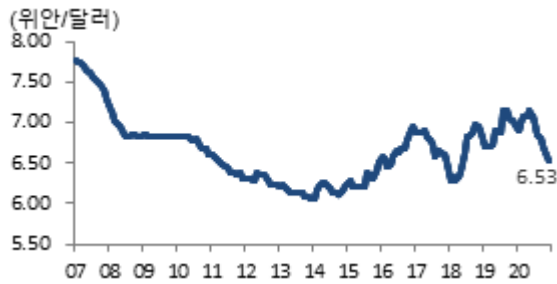
원/달러(월간)



원/달러(일간)



위안/달러(월간)



위안/달러(일간)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붙임4 | 12월중 주가지수 동향

■ 코스피 지수는 전월말 대비 10.9% 상승(2,591 → 2,873)

-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로 개인투자자가 대규모 순매수하며 월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최대폭 상승
 - * 12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3.7, 외국인 -1.8, 기관 -1.9
 - * 투자자 예탁금(조원): 10월말 55.0 → 11월말 61.6 → 12월말 65.5

■ 국내 은행주는 전월말 대비 1.6% 하락(코스피 대비 12.5%p 부진)

- 배당락과 배당규제 영향으로 신한금융(-4.3%), 우리금융(-1.6%), KB금융(-1.0%), 하나금융(-0.5%) 주가가 일제히 하락
 - * 12월 중 외국인은 하나(+531억원)를 순매수했으나, KB(-642), 우리(-242), KB(-125)는 순매도
 - * 금융감독원은 전년 26~27%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하향 권고하는 방안(15~25%)을 조율 중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1.9% 상승(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1.4% 하락)

■ 코스닥 지수는 전월말 대비 9.3% 상승(886 → 968)

- 바이오·IT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
 - * 12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0.3, 외국인 +1.1, 기관 -1.4

■ 선진국(MSCI DM), 신흥국(MSCI EM) 증시는 각각 4.1%, 7.2% 상승

- 일본(3.8%), 미국(3.7%), 중국(2.4%), 유럽(1.7%) 증시가 모두 오름세

■ S&P500 지수는 전월말 대비 3.7% 상승(11월말 3,622 → 12월말 3,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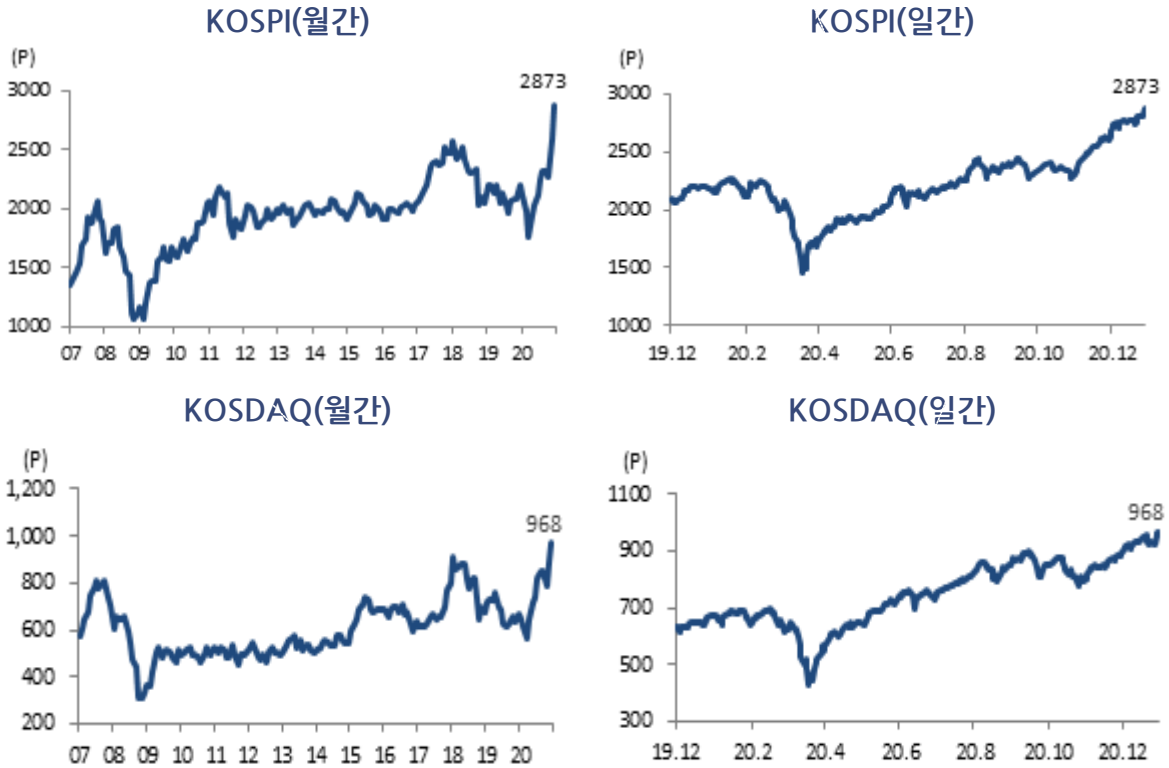
- 미국의 백신 보급 개시와 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타결(12.27일)로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투자심리가 개선
 - * 추가 부양책 타결로 실업수당 지급, 퇴거금지 조치 기한 등의 지원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상원에서는 1인당 현금지급액 증액(600→2,000달러) 법안을 논의 중

주요 주가

		12.31일 종가	변화율(%)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국내 증시	KOSPI	2,873	10.9	23.4	36.3	30.8	30.8
	KOSDAQ	968	9.3	14.2	31.2	44.6	44.6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2,690	4.1	13.6	22.2	14.1	14.1
	(신흥국)MSCI EM	1,291	7.2	19.3	29.8	15.8	15.8
	(미국)S&P500	3,756	3.7	11.7	21.2	16.3	16.3
	(일본)Nikkei225	27,444	3.8	18.4	23.1	16.0	16.0
	(유럽)Eurostoxx50	3,553	1.7	11.2	9.9	-5.1	-5.1
	(중국)상해종합지수	3,473	2.4	7.9	16.4	13.9	13.9
은행주	Global Top 50 ¹⁾	-	1.9	24.6	16.0	-16.2	-16.2
	Asia Top 10	-	-1.4	9.3	5.8	-16.5	-16.5
	우리금융	1,557	-1.6	16.7	19.6	-15.7	-15.7
	KB금융	9,730	-1.0	13.4	10.4	-16.1	-16.1
	신한금융	43,400	-4.3	15.6	27.8	-8.9	-8.9
	하나금융	32,050	-0.5	16.1	11.5	-26.1	-26.1

주: 1)글로벌 은행 순위는 `18년 Tier1 자본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 2020.12.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